민주 광주·전남 당선자들 "정신 차리자"

원내대표 호남주자 이낙연 출마 공감
지역발전 극대화할 상임위 배분 논의

어제 영광서 회동

광주·전남지역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2일 회동을 갖고 원내대표 경선과 비대위 구성, 전당대회 등 당내 정치 일정은 물론 정권 교체를 위해 호남 정치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내부 논의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진출을 결정하는 한편,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 광주·전남지역 민주통합당 당선자들은 이날 영광 법성포에서 회동을 갖고 호남 정치권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비대위 구성, 전당대회는 물론 대선 정국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호남 정치권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도 지역 의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상임위 진출을 협의해 결정하고 광주시와 전남도와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회동은 호남 정치권의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심의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며 "당내 주요 정치 일정은 물론 대선 정국에서 호남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원내 대표 경선에는 이낙연 의원이 호남 단일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경선 도전 의사를 보여왔던 김동철 의원은 22일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낙연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에 나섬에 따라 출마를 접기로 했다"며 "호남 표 분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우윤근 의원도 "이낙연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출마에 나선데다 박영선 의원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내일까지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전북에도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이 없는 만큼 이낙연 의원은 호남 단일 주자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적인 판세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내 주류인 친노·486 세력이 중도적 성향인 이낙연 의원을 밀어줄 것인지도 미지수인데다 호남 단일 주자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합리적 성향의 이 의원이 당내에서 전반적으로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끈끈하고 강력한 정치적 연대력이 부족한데다 리더형이 아닌 참모형 정치력을 가진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3~4파전으로 복잡하게 얽힐 경우, 호남 표심과 중도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의원이 선전할 가능성도 높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총선후 치솟는 '박지원 주가'

원내대표 경선·비대위 구성·전대 등 영향력 주목

원내대표 경선, 비상대책위 구성, 전당대회 등 민주통합당의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박지원 최고위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당장, 원내대표 경선에서 박지원 최고위원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19대 국회에서 호남 정치권의 위상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10표 이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원내대표 결선 투표가 이뤄진다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에 박 최고위원이 친노·486의 당내 주류 세력을 견제하며 중도 및 비노 진영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위 구성에도 일정 정도 지분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6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내 친노와 비노의 조정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의 정치적 경륜을 바탕으로 12월 대선에서의 킹-메이커 역할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 최고위원은 당권 도전과 관련 "당의 여러 관계를 보고 결심하겠으며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는 "당의 흐름이 어떤 계파의 독식으로 간다면 대선 출마도 고려하겠다"며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친노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손학규 전 대표와 한국노총과의 3자 연대설과 관련해서도 박 최고위원은 "악수는 했지만 손은 잡지 않았다"며 거리를 뒀다.

이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대선 승리라는 정치적 명분 등을 위해 어느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총선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친노 세력도 당내 중도 세력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박 최고위원의 정치적 위상은 상당히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친노가 당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최고위원이 당내 세력 균형을 이루는 중심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비확보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첫 정책협의회

내년도 국비확보 '올인'키로

광주시와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0일 첫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확보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광주시는 20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주선(무소속·동구)·박혜자(민주·서구갑)·오병윤(통합진보·서구을)·장병완(민주·남구)·강기정(민주·북구갑)·임내현(민주·북구을)·김동철(민주·광산구갑)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 시정 현안 설명과 함께 국비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재정소요가 많으나 재정자립도는 다른 광역시 평균에 못미친다"며 "특히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난도 심각해 국비확보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에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또 "최근 개최가 확정된 2014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총회를 비롯해 2013 세계기록유산국제자문회의, 2013 세계한상대회, 2015 국제디자인연맹총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5개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며 "당선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선자들은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로 어느 때보다 신규사업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치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선자들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에 힘쓰겠다"며 "수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오병윤 당선자가 통합진보당 소속으로는 처음 참석해 "국비사업 확보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과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 주민과의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대성 새누리 탈당

국민대 "논문 표절 사실"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자가 지난 20일 자신의 논문 표절 사실이 국민대학교 측에 의해 밝혀지자 즉시 탈당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소속의 김형태 당선자(포항 남·울릉)에 이어 문대성 당선자(부산 사하갑)까지 탈당함으로써 새누리당 원내 과반 의석이 19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무너졌다. 지난 11일 152석을 획득해 단독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했지만 9일 만에 붕괴한 것이다.

문 당선자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고 탈당 의사를 표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원내대표 경선 중진들 잇단 출사표

이낙연·전병헌·박기춘 출마 선언 이어 신계륜·박영선 등 채비

다음달 4일 선출되는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출마 선언에 나서는 등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맡는 것은 물론 오는 6월 임시 전당대회와 19대 국회 개원 협상을 진두지휘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19일에는 4선의 이낙연 의원(전남)이, 20일에는 전병헌 의원(서울)이 출사표를 던진데 이어 22일에는 박기춘 의원(경기)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신계륜 당선자(서울)와 박영선(서울), 신학용(인천), 조정식(경기) 의원, 유인태 당선자(서울) 등도 원내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에서는 박병석(대전), 노영민(충북)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독자적인 힘으로 부산에서 3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 주 출마 선언과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후보자 등록을 거치며 전체적인 판세가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친노(친 노무현 대통령)와 비노(非盧) 간의 미묘한 이해 관계와 함께 후보 간의 합종 연횡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민생공약특위' 출범
당권·대권주자 전면 포진

박지원·문재인·정세균·김한길·이해찬 본부장 맡아

민주통합당은 22일 민생안정 등 5개 분야의 민생공약실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대권·당권 주자들을 본부장으로 전진 배치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특위 산하 본부장에 당의 대표급 지도자들로 선임하고, 간사에 재선과 3선 중진 그룹 인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생안정' 본부장은 박지원 최고위원이 맡고, 간사는 정통부 차관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역임한 3선의 변재일 의원이 뽑혔다.

'좋은 일자리' 본부장은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맡고, 재선의 홍영표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경제 민주화' 본부장에는 당 대표를 역임한 5선의 정세균 상임고문이 배치됐고, 간사는 재선의 김영주 당선자가 맡기로 했다.

'보편적 복지' 본부장은 김한길 전 원내대표가 맡고, 간사에는 정책위 의장을 역임한 3선의 주승용 의원이 선임됐다.

'한반도 평화' 본부장은 이해찬 전 총리가 맡았고, 서울 마포을 정청래 당선자가 간사로 선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